



제목	Shahnameh : The Epic of the King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Yassavoli Publications
발행일	2014
저자	Abolqasem Ferdowsi Reuben Lewy(번역자)
출판국가	이란
페이지수	189
ISBN 또는 ISSN	978-9643062088

내용 요약

저자 페르도우시(Ferdowsi, 940년경~1020년경)는 매우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페르시아 시인이어서 흔히 그리스의 호메로스와 대비되곤 한다. 그는 이란 민족 고유의 신화·전통·역사를 기초로 975년경부터 웅대한 민족적 서사시 ‘샤나메’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35년여 세월에 걸쳐 약 6만 구절에 이르는 대작을 완성하였다. 대대로 전해진 풍부한 구전 전통뿐만 아니라 10세기 말에 살해당한 시인 다퀴키가 쓴 천여 편에 이르는 시들이 길을 안내해 주었노라 스스로 밝히고 있다. 샤나메는 본래 7세기 아랍 정복 이후 페르시아 전통문화 부흥에 앞장 선 사만왕조 만수르 왕자의 후원으로 집필되었지만, 990년경 튀르크의 가즈나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는 술탄 마흐무드에게 헌정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해를 받고 고향인 투스를 떠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1010년에 완성된 서사시 샤나메는 그의 작품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왕(샤)의 책(나메)’으로서 이란의 건국에서 사산왕조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네 왕조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앞의 두 왕조는 가공의 왕조로서 엄밀한 의미의 역사 실록보다는 신화 혹은 전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아 선과 악의 대립과 투쟁을 서사의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샤나메에는 훗날 수많은 무용담과 사랑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작품 전반에 걸쳐 운명론이 저류를 이루고 있다.